







시 초

피땀의 신천의 하늘아래선 손에 띠어 땀에도 분노에 떠는 총창이 되느냐 서슬무른 장검이 되느냐

피는

원썬들의 가슴팍을 찌르는 비수가 되라 미제의 정수리에 피트는 폭탄이 되라

아, 억한 마음아 말뚝길 없구나 아데 가나 행복의 대문이 반기는 이 땅에서 원한으로 쌓아올린 문주 아닌 이 문주로 들어서야 하는 나의 마음아

피로

만복의 대문으로 들어서서 사람들아여 여기를 거쳐서 가라 이 하늘아래 흘러가는 변영의 세월이어 신천에 새겨진 피의 52일을 영원히 안고 흐르고 흐르라

써!

이 시각도 세상을 제 집 마당처럼 싸돌아 다니며 《평화》와 《인권》을 떠드는 미국 피들은 총구를 휘둘러대면서도 《정의의 사도》로 자처하는 그것은 분렬한 미제의 허상일뿐이다

도살자! 식인종! 미국이 어떤 인두집을 쓴 야수인지 제일 똑똑히 제일 날날이 볼수 있는 곳 다시는 이 행성에 또 다른 신천이 없게 하기 위하여 미국을 발가놓는 피의 고발장

우리는 신천박물관을 새로 세웠다

신천 추억조차 피로운 너는 이 땅의 아픔! 너는 이 나라의 상처! 그 아픔 그 상처들을 쓰러진 가슴에 그리안아 우리는 여기에 박물관을 더 크게 더 높이 새로 세웠다 이 땅에 세워야 할 그 많은 창조물들앞에... 한살 또 한살 미제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원한의 피가 스민 붉은 땅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운 우리 그우에 지붕이 아니라 원주에게 베풀을 철 복수의 하늘을 엮었다

가슴이 찢겨지고 아픔이 아픔이 덧쌓일지라도 이 피의 문주로 내 들어서리여기를 애들이간다면 우리를 향해 열리던 행복의 문들에 불행의 빛장이 다시 질리고 노예의 쇠사슬은 온몸을 휘감으리

피의 교정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에게 말을 할수 있는가 걸음걸음 우리에게 꿰뚫어 가르치며 피의 강의를 하고있는 신천의 병흔들 한자욱 짙으면 돌도 안된 어린 동생을 업은채 생애장당한 소녀의 피울음소리 -이 원주를 감아주세요... 또 한자욱 옮기면 도끼날에 맞아 죽고 걸이대에 썰려 죽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의 절규 불에 타 숯덩이가 된 그들의 부르짖음

세세년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여기를 찾는 복수자들의 대오 끊기지 않으리니 우리가 나서야 할 판가리결전장앞에 신천의 봉분은 피의 문주로 솟아있어라

피는 피로써!

두주먹 부르리고 박물관을 나서니 눈앞엔 설에는 금나라 해빛은부신 창가마다엔 기쁨안고 울리는 노래소리 피에 젖은 어제와 행복의 오늘이 눈앞에 마주서있는 여기 원주하구나 살아있다면 이 땅의 주인으로 저 모든 행복을 마음껏 누렸을 -원주에 대한 탄압한 한 한살도 죽음이!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라!

신천의 문주

박물관앞에 나란히 솟은 사백어머니묘 백돌어머니묘 복수자들을 끌어들이 맞아주는 신천명의 문주인가

여기서 미국을 보라

엄마의 젖음을 찾아 콩크리트벽을 허비던 백돌어머니 그 어린 고사리손들이 승냥이의 면사포를 벗기고있다

오, 피는 피로써! 이 땅에 사투린 원한을 남긴 미제 너희들의 땅이 대양 건너 있다고 병사의 총구에서도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말라 태양양의 물은 통째로 일으켜도 이 가슴에서 타버려가는 증오의 불길만은 막지 못하리



무재봉영웅전사들의 투철한 수령령사용위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한덕수평양정공립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제손으로 가꾼 행복의 열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비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환희의 10월은 피끓는 심장을 부른다

장산대외건설 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중앙동원건설공사에서 지난 시기 크게 이룩이 없던 장산대외건설 자양성사업소가 소문없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달마다 월공정계획이 달성되어 앞당겨 수행하면서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딛는 이국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기세와 열의는 이만 저만 아니다.

동아시아축구연맹 제46차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동아시아축구연맹 제46차 집행위원회 회의가 1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장경 위원장을 비롯한 동아시아축구

동아시아 축구 연맹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장경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아시아축구연맹대표단이 19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측 하단 이 떠나 갔다

홍인홍 총련중앙사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측 하단이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영애군인인 제에게는 한시술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그들속에는 한두명도 아니 고 지난 10년간 저와 저의 가정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군향정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습니 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일처럼 여기고 적극 도와나섰습니 다. 직장 일이 바쁜 속에서도 잠잠이 시간을 내어 밤늦게까지 미장과 도배를 해주고 비밀재라도 깎아줄 때 저는 그 고마움을 무엇이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 다.

제 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 전람회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회의 대표단 도착

제 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 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회의 대표단이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총련의 방문단들이 떠나갔다

황남식을 단장으로 하는 제 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 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회의 대표단이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